평시 민간공항 대상 폭발물 탑재 드론 위협 사례

- 독일 라이프리치/할레공상 사건 중심 -

발행일 2026. 8. 9. | 제2026-1호

드론 위협은 단순 항공보안 문제를 넘어 평시 민간공항과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는 복합 안보위협으로 확장

□ 주요 사건 개요

가. 라이프치히/할레공항 사건 (2026. 8. 4.)

- 독일 라이프치히/할레공항 제한구역 내에서 폭발물 및 기폭장치 장착 드론 발견
- 독일 연방검찰: 폭발 시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황 확보 후 수사 착수
- 독일 국가안보회의(NSC) 공식 안건으로 상정
- 독일 연방내무장관: '단순 불법 드론 비행이 아닌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평가

나. 메헤르니히 군사기지 사건 (2026. 8. 6.)

- 군사기지 상공에서 드론 2대 추가 발견, 현재 수사 진행 중
- 두 사건 간 연관성 및 배후 조직 여부는 미확인 상태

□ 사건 평가

가. 위협 성격 변화

- 기존: 전쟁지역 또는 테러 환경 중심의 드론 공격
- 현재: 평시 민간공항 및 군사·물류 복합시설 대상 위협으로 확장

나. 전략적 의미

- 민간공항이 군사·물류 기능과 결합된 복합 인프라로서 공격 표적화 가능성 증가
- 드론이 단순 불법 비행 수단을 넘어 '정밀 타격형 위협 플랫폼'으로 진화

□ 항공보안에 대한 시사점

가. 통합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현행 드론 대응체계를 다음과 같은 단계별 통합 프로세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탐지 및 식별 ,
- 항공기 운항 통제
- 위협 수준 판단 및 무력화 결정
- 폭발물 처리 및 현장 통제
-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대테러 수사 연계
- 공항 운영 정상화

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공항 종사자 대상 실전형 교육 강화
- 의심 드론 발견 시 접근 금지 및 즉시 신고 체계 확립
- 합동 모의훈련 정례화(공항공사・경찰・군・소방・정보기관)

□ 정책 제언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가. 위협 단계 구분 체계 도입

공항 드론 위협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1단계: 과실·취미 목적 불법 비행
- 2단계: 범죄 목적 비행(정보수집·시설침입)
- 3단계: 폭발물·위험물 탑재 공격
- 4단계: 국가·조직 개입 하이브리드 공격

나. 제도적 개선 방향

- 단계별 대응기관 및 권한 명확화
- 공항별 안티드론 통합지휘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드론 위협 통합 상황관리 체계 마련

□ 결론

본 사례는 드론 위협이 단순 항공보안 문제가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공항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안티드론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참고자료

독일 연방정부 공식 발표 | 독일 연방검찰 발표를 인용한 Reuters 보도 | Reuters 후속보도 | AP 통신 보도